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지도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김 춘 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흔히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 하며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삶의 의미는 장기간의 동기유발에 강력한 자원(Bronk, Finch, & Talib, 2010)이며 일반적으로 삶에 의미가 확실한 사람은 보다 희망적이고 변화에 적응을 잘 하게 되므로, 최근 들어 인간의 삶의 의미는 심리적 건강 및 삶의 질과 함께 만족하고 행복한 삶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Kang, 2001;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이나 실존주의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잠정적으로 개인의 경험적 관점에서 자기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건강의 핵심요소(Kim, Jung, Ko, & Song, 2001; Pinquart, 2002)가 되며 국내연구에서는 삶의 의미(Choi, 2011; Gong & Kim, 2010; Han & Choi, 1999; Kang, 2001; Kim & Kim, 2009)와 삶의 목적(Kang, 2003; Kim et al., 2001)을 혼용하고

있다. 삶의 의미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하지만 대학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정립과 자기 삶의 방향설정을 위해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 시기는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이행기로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내부적, 외부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Kim & Kim, 2009)이기 때문이다. 특히, 삶의 의미에 가치를 둘 경우 자신의 삶에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Scheier et al., 2006)하게 되므로 혼란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실 인지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삶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삶 가운데 뗄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의미와 목적은 있는 것이다(Han & Choi, 1999).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상실에 직면하게 될 때 삶과 연계하여 의미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며(Pinquart, 2002) 삶의 다른 측면인 죽음이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하는 많은 이들조차

* 이 논문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1033504).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kimcg@hallym.ac.kr)

투고일: 2013년 10월 22일 심사외뢰일: 2013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Chun-Gill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9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14 Fax: 82-33-248-2734 E-mail: kimcg@hallym.ac.kr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노인에서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컸던 것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타인의 상실, 시체와 때 이른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 노인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으로 보고(Jang & Choi, 2007)되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좋은 죽음을 삶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죽음공포를 갖는다는 보고와는 달리 우리나라 20대 사망원인의 1순위는 자살로 고의적 자해방법이 차지하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2) 대학생의 연령층인 20대 젊은 층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에 대한 죽음 연구는 적은 편(Lee, Jo, Chee, & Lee, 2008)이며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태도가 짙어(Jo & Lee, 2008)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 연구는 죽음의 의미나 죽음불안을 알아보는 연구, 혹은 교과목 학습 전후 죽음인식변화(Choi, Lee, & Park, 2002; Jang & Choi, 2007; Lee et al., 2008)가 보고되었을 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지정도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삶과 연계하여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측면인 좋은 죽음이나 부정적 측면인 죽음에 대한 걱정 정도를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연계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내적인 힘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지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며(Lee & Kim, 2012)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성취와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되며(Choi,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더 잘 하게 된다(Sung, 2008).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Choi & Son, 2007; Kang, 2003)를 보여 삶의 의

미 수준에 따라 자신의 유능감과 중요성, 존재의 가치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향상(Kim & Kim, 2009)시켰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에 영향력이 큰(Choi, 2011) 자아존중감은 삶의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로서 내외적 혼란기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고들은 많지 않아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아동기 후기나 사춘기에 발달되기 시작한 삶의 의미가 확립되는 중요한 때이므로 이들의 삶의 의미 확립을 도울 수 있는 연구는 시급하다. 반면 지금까지 국내 간호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는 소수(Kang, 2001; Kim & Kim, 2009)여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인간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하는 간호 건강전문직에서 이의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 초기의 진입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 주체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직업 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Choi & Son, 2007) 이때 삶의 의미는 그들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유발요소가 된다(Bronk et al., 2010). 따라서 대학생의 삶의 의미 수준과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의미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중재가 가능한 변수로 지금까지 국내 간호학 연구 보고를 찾을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지도 측면, 즉 좋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개인의 특성 중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관련되는 특성(Choi, 2011; Kang, 2001; Kim & Kim, 2009)을 중심으로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수준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도 및 대학생활의 적응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죽음에 대한 인지에서 긍정적 측면의 좋은 죽음과 부정적 측면의 죽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대학생의 삶의 의미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편의표집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H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3년 3월에서 6월까지 H대학교 철학과, 심리학과, 컴퓨터 공학과와 간호학부 재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서면 동의한 자에게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대상자를 개인 혹은 집단으로 만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을 사용하여 Effect size는 0.15로 하고 검정력을 95%로 하여 산출된 222명에 탈락률을 20% 정도로 하여 270명 이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325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시도하였으나 설문 도중에 중단하였거나 수거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았던 것을 제외하고 최종 301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윤리적인 고려

연구 시작 전에 H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HIRB-2013-007).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연구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조사 자료는 익명으로 실시되고 연구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과 서면으로 알린 후 서면 동의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응답하도록 한 다음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4. 연구 도구

1) 삶의 의미

Crumbaugh와 Maholick (1964)의 삶의 의미(Purpose in Life)도구를 Kim 등(2001)이 한국어판 20문항, 7점 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1은 '삶에 대한 태도'로 8문항, 요인 2는 '삶에 대한 목표 의식'으로 5문항, 요인 3은 '삶에 대한 주도성'으로 3문항, 요인 4는 '존재에 대한 가치감'으로 4문항으로 되어 있다. 7점 척도 중 아주 긍정적인 답은 7점, 아주 부정적인 답은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좋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Crumbaugh & Maholick, 1964)의 반분신뢰도는 .85이었으며 Kim 등(2001)의 연구에서 20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 죽음에 대한 인지도

• 좋은 죽음

Schwartz, Mazor, Rogers, Ma와 Reed (2003)가 건강 관리자를 위해 개발한 좋은 죽음(Good Death) 측정도구 17문항을 Jeong (2010)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와 연구실시 전 대학생 10명에게 좋은 죽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17문항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폐)을 주지 않는 것이다.'와 '필요한 사람과 용서와 화해 후 사망하는 것이다.' 2문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총 19문항을 간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거쳐 본 연구의 좋은 죽음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좋

은 죽음 내용의 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4점', '중요하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chwartz 등(2003)의 연구에서 조사-재조사의 상관계수는 .66에서 .83으로 비교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인 의료인에게 적용한 Jeo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본 연구에서 19문항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죽음에 대한 걱정

Mazor, Schwartz와 Rogers (2004)의 죽음걱정(Concerns about Dying) 도구 10문항, 5점 척도를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간호학 전공 교수 1명과 영문학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은 다음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하고 긍정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걱정이 크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 (1974)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 10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965년 Rosenberg가 처음 개발 한 후 1989년 본인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다음 저작권 없이 전 세계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Lee, Nam, Lee, Lee, & Lee, 2009). 본 도구는 '항상 그렇다 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고 부정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Lee 등(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정도의 차이는 t-test나 ANOVA로 분석하였으며 Duncan test로 사후 검정을 하였다.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자아존중감 정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 정도는 다중공선성의 진단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의 평균은 23.01±2.83세였으며 여대생 262명(87.0%)으로 남대생 39명(13.0%)보다 많았고 학년은 3, 4학년이 90.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교성적은 중정도가 213명(70.7%), 경제 상태는 중 246명(81.8%), 대학생활 만족도는 상 159명(52.8%), 부모와의 관계는 좋음 140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형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210명(69.8%)으로 혼자 사는 경우 보다 많았고 종교는 없다가 154명(51.2%)으로 있다 보다 많았다. 친구관계는 나쁘다는 없었으며 좋다가 241명(80.1%)으로 보통 60명(19.9%)보다 많았다(Table 1).

2.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및 자아존중감 정도

삶의 의미정도는 46.00~140.00점의 범위로 평균 94.08±15.16점(문항평균 4.70±0.76/7점 척도)으로 중상 정도를 보였다. 요인별 정도는 '삶에 대한 태도' 4.82±0.87점, '삶에 대한 목표 의식' 4.90±0.84점, '삶에 대한 주도성' 4.28±0.93점, '존재에 대한 가치감' 4.56±1.02점으로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이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주도성이 가장 낮았다. 죽음의 인지 정도 중 좋은 죽음의 정도는 19.00-75.00점의 범위로 평균 59.22±6.84점(문항평균 3.12±0.36/4점 척도)으로 중상 정도로 좋은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죽음에 대

한 걱정은 12.00~47.00점의 범위로 평균 30.49±5.66점(문항평균 3.05±0.57/5점 척도)으로 중정도보다 약간 높게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16.00~40.00점의 범위로 평균 29.50±4.21점(문항평균 2.95±0.42/4점 척도)으로 중상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Table 2).

도의 차이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대학성적($F=6.86, p=.001$), 대학생활의 만족도($F=20.01, p<.001$), 친구관계($F=8.07, p<.001$), 부모와의 관계($F=15.68, p<.001$)이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성적이 좋은 군이 중, 하 군보다 삶의 의미 정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의 만족도는 높은 군이 삶의 의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정

Table 1. Differences of Meaning in Lif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3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Meaning in life			
			M±SD	t or F	p	Duncan
Gender	Male	39 (13.0)	4.92±0.89	1.69	.098	
	Female	262 (87.0)	4.67±0.73			
Age(year)		23.01±2.83				
Grade	1	14 (4.7)	4.76±0.91	0.44	.725	
	2	16 (5.3)	4.69±1.11			
	3	145 (48.1)	4.65±0.64			
	4	126 (41.9)	4.76±0.81			
School grades	Excellent ^a	55 (18.3)	5.01±0.79	6.86	.001	a>b
	Moderate ^b	213 (70.7)	4.66±0.72			
	Poor ^b	33 (11.0)	4.46±0.79			
Living alone	Yes	91 (30.2)	4.69±0.74	-0.21	.835	
	No	210 (69.8)	4.71±0.77			
Religion	Yes	147 (48.8)	4.77±0.75	-1.50	.134	
	No	154 (51.2)	4.64±0.76			
Economic status	Good	17 (5.6)	4.79±0.97	0.16	.855	
	Moderate	246 (81.8)	4.69±0.75			
	Poor	38 (12.6)	4.74±0.69			
Satisfaction of school life	Good ^a	159 (52.8)	4.93±0.72	20.01	<.001	a>b>c
	Moderate ^b	129 (42.9)	4.50±0.69			
	Poor ^c	13 (4.3)	3.96±0.79			
Friendship	Good	241 (80.1)	4.85±0.73	8.07	<.001	
	Moderate	60 (19.9)	4.14±0.57			
	Poor	0 (0.0)				
Relationship with parents	Good ^a	140 (46.5)	4.79±0.74	15.68	<.001	a>b
	Moderate ^b	125 (41.5)	4.08±0.58			
	Poor ^b	36 (12.0)	4.00±0.75			

Table 2. Levels of Meaning in Life and Other Variables of Subjects

N=301

Variables	M±SD	Item M±SD	Range
Meaning in life	94.08±15.16	4.70±0.76	46.00 ~ 140.00
Attitude about the life	48.19±8.68	4.82±0.87	22.50 ~ 70.00
Purpose of the life	48.96±8.36	4.90±0.84	18.00 ~ 70.00
Initiative	42.77±9.33	4.28±0.93	23.30 ~ 70.00
Value about being	45.56±10.22	4.56±1.02	15.00 ~ 70.00
Good death	59.22±6.84	3.12±0.36	19.00 ~ 75.00
Concerns about dying	30.49±5.66	3.05±0.57	12.00 ~ 47.00
Self esteem	29.50±4.21	2.95±0.42	16.00 ~ 40.00

미 정도가 가장 높았고 보통 군, 나쁜 군 순서로 삶의 의미 정도가 낮아졌다. 친구관계는 좋은 군이 보통 군보다 삶의 의미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좋은 군이 보통 및 나쁜 군보다 삶의 의미 정도가 높았다(Table 1).

4. 삶의 의미,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삶의 의미는 대상자의 연령($r=.17, p=.003$), 좋은 죽음($r=.15, p=.012$), 죽음에 대한 걱정($r=-.18, p=.002$) 및 자아존중감($r=.72,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의미는 높아졌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걱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걱정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 정도는 낮아짐을 보였다. 특히 삶의 의미는 자아존중감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변수들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5.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의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성적, 대학생활의 만족도, 친구관계, 부

모와의 관계는 명목변수로 더미처리를 하고 종속변수인 삶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보였던 변수들과 함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 분석, 영향력 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 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에 가까운 1.739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추정치가 .000~.229로 나타나 1.0 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그 값이 0.860~1.000으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00~1.163으로 모두 10미만이었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삶의 의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79.07, p<.001$) 삶의 의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608, p<.001$), 대학생활의 만족도($\beta=.190, p<.001$), 부모와의 관계($\beta=.180, p<.001$), 좋은 죽음($\beta=.080, p=.030$), 대학성적($\beta=.078, p=.036$), 연령($\beta=.074, p=.045$)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은 61.0%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대학성적이 좋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의미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eaning in Life and Other Variables

N=301

	Age r(p)	Good death r(p)	Concerns about dying r(p)	Self-esteem r(p)
Meaning in life	.17 (.003)	.15 (.012)	-.18 (.002)	.72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s' Meaning in Life

N=301

Variable	B	S.E	β	R ²	Adj R ²	t	p
Constant	-1.320	.381				-3.46	.001
Self-esteem	1.095	.070	.608	.52	.52	15.63	$<.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0.221	.044	.190	.57	.57	5.05	$<.001$
Relationship with parents	0.188	.040	.180	.60	.60	4.64	$<.001$
Good death	0.168	.077	.080	.61	.60	2.18	.030
School grades	0.110	.052	.078	.61	.61	2.11	.036
Age	0.020	.010	.074	.62	.61	2.01	.045
F = 79.07, Adj R ² = 0.61, 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정도는 평균 94.08점, 7점 만점에서 4.70점으로 중상의 삶의 의미 수준을 보였다.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했던 대학생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정도는 Kang (2001)의 103.74점보다는 낮았으나 Kim과 Kim (2009)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전 대학 신입생 삶의 의미 값인 89.25~92.90점, Choi와 Son (2007)의 남자 대학생 73.90점, 여자 대학생 71.47점, Park과 Lee (2002)의 90.58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별 년도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구 개발자인 Crumbaugh와 Maholick (1964)의 연구에서 정상인의 삶의 의미 점수는 119점이었고 건강하지 못한 군이 99점을 보였던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18-60세까지 625명의 연구(Kim et al., 2001)에서 정상 일반인 군의 평균 점수인 95.66점보다도 조금 낮아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점수는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 삶의 의미는 개인의 동기유발, 적극적 삶의 참여, 사회적 통합과 정신건강에 주요한 자원이며 젊은 층에서는 긍정적 발달단계와 능력을 도모한다(Błazek & Besta, 2012; Pinquart, 2002). 따라서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삶의 의미 증진에 효과가 있었던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Kim & Kim, 2009)과 자아개념의 명료화(Błazek & Besta, 2012)와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삶의 의미 하부 요인 중 '삶에 대한 주도성'과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삶에 대한 목표 의식'과 '삶에 대한 태도'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의 지도, 상담과 삶의 의미 증진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주도성과 존재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구체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점이 제한점이므로 이후 다양한 세팅에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전국 단위 대학생의 삶의 의미 정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인지도 중 좋은 죽음의 정도는 평균 59.22점으로

4점 만점에 3.12점으로 중상 정도였고 죽음에 대한 걱정은 평균 30.49점으로 5점 만점에 3.05점으로 중정도 보다 약간 높게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 (2010)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좋은 죽음 점수 3.06점과 의사 2.93점보다 높았으나 Shin (2011)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좋은 죽음 점수인 3.38점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주로 말기대상자의 돌봄 연구에 적용(Schwartz et al., 2003)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도 임종환자나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Han, Yoon, Park, Cheong, & Yoo, 2002)가 이루어져 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므로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좋은 죽음의 측정 도구를 검증한 연구(Jeong, 2010; Schwartz et al., 2003)에서는 의료인, 간호대학 및 의과대학의 학생과 생명과학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부 학생과 다른 과 학생들을 구분하여 좋은 죽음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원 도구의 연구(Mazor et al., 2004)에서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죽음에 대한 걱정이 각각 3.28점과 2.79점을 보였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는 그 중간을 보였으나 국내 대학생들의 죽음태도는 부정적 태도가 짙다는 보고(Jo & Lee, 2008)로 미루어 볼 때 대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좋은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죽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9.50점으로 4점 만점 중 2.95점으로 중상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i (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 중 3.92-4.99점, Kim과 Kim (2009)의 대학생에게 프로그램 전 자아존중감 값인 31.34~32.48점보다 낮았으며 고교생의 3.79점(Kang, 2003)보다 낮았다. 그러나 Lee와 Kim (2012)의 대학생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정도가 28.90점 이었던 결과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경우 좀 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 자신의 속성을 잘 알게 되고(Błazek & Besta, 2012), 보다 대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Sung, 2008)되었으므로 높은 편이 아니

었던 본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Kim과 Kim (2009)의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자신의 내면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기유발, 친밀감 형성, 자신감 향상, 자기개발, 가치관 찾기, 자기표출, 희망 갖기, 단점 해결 및 성공담 표출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삶의 의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Choi & Son, 2007; Kang, 2003)을 근거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의미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도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았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정에서는 그들의 삶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삶의 의미 정도에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학성적, 대학생활의 만족도,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이었고 성별, 학년, 다른 사람과 동거, 종교, 경제상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Kang (2001)의 간호대학생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신앙의 중요성이 삶의 의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과, 학년과 종교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Choi (2011)의 결과, 남자 성인이 여자 성인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았던 결과(Han & Choi, 1999), 대학생에서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았던 결과(Choi & Son, 2007)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이 삶의 의미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Kim 등(2001)과 Park과 Lee (2002)의 연구결과와 Han과 Choi (1999)의 연구에서 종교유무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적, 친구관계나 부모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어 이러한 특성들은 추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Kang (2001)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정도는 편부모와 관계 등의 가족사항이나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족과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는 조사 상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 결과와 같아 대학생에서 경제상태는 삶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적, 친구 및 부모관계에 따라 삶의 의미정도가 차이

를 보였던 결과는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직업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주요 스트레스원(Choi & Son, 2007)인 점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의 취업에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별 삶의 의미에 대한 차이는 연구별로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에서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여학생과 3, 4학년생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므로, 이후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특성별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대상자의 삶의 의미는 연령, 좋은 죽음,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과는 강한 상관($r=.72$)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는 자아존중감($r=.72$)과 상관관계가 높았던 Choi (2011)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그 외 고교생(Kang, 2003)과 성인(Scheier et al., 2006) 연구에서도 중정도($r=.46\sim.49$)의 정적관계를 보였던 결과들과 상통되어 삶의 의미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Kang, 2001)의 연령은 삶의 의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노인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삶의 의미가 감소한다는 외국보고(Pinquant, 2002)와 30대, 40대, 50대의 국내 성인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가 낮은 결과(Han & Choi, 1999)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젊은 층과 노인층과는 연령과 삶의 의미에서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Pinquant, 2002)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로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죽음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는 좋은 죽음, 죽음에 대한 걱정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직접 보고한 연구를 찾지 못했으나 성인의 삶의 의미 정도는 죽음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Han & Choi, 1999)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자신의 삶을 다 사는 것 이외에도 가족의 삶까지도 중요시하는 점(Han et al., 2002)과 일부 상통된다고 본다. 더불어 인간의 삶은 죽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죽음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으므로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죽음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에는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의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좋은 죽음, 대학성적,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은 61.0%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대학생의 연구, 즉 Błażek와 Besta (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의미에서 유의미한 예측인자였던 점, 그리고 Choi (2011)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사회적 회피와 불편감이 삶의 의미를 60.4% 설명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인 점이 상통된다. 반면 노인의 삶의 의미에는 우울, 외로움과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5%(Gong & Kim, 2010)였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별로 조사변수의 차이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주로 죽음을 가끔씩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로 타인의 죽음, 가정문제, 취업 및 진로, 친구문제 등과 같이 자신이 아닌 다른 근거를 제시(Jo & Lee, 2008)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죽음에 대해 대학생 자신을 주체로 하여 조사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 삶의 의미에 영향정도는 자아존중감 이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의 인지정도는 관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다양화 하여 삶의 의미의 영향 요인을 연령대 별로 합당한 변인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발표된 삶의 의미의 영향변수 연구에 대해 인생주기별로 분석한 문헌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좋은 죽음과 대상자의 특성 등 삶의 의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설명력이 컸으므로 이후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이들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삶의 의미 정도는 중상정도로 높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대학성적, 대학생활의 만족도,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삶의 의미는 연령, 좋은 죽음,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의미에 대한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의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좋은 죽음, 대학성적,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은 61.0%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삶의 의미 수준에서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에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즉시 변경이 어려운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등과 같은 요인보다는 접근과 변경이 용이한 대학생활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긍정적 죽음의 인지 정도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중재를 해야 하는 근거와 이를 대학 상담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제공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아동기 후기나 사춘기 대상자, 나아가 일반 성인과 노인은 물론 간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한 점에 연구 의의를 둔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에서 유의한 영향변수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삶의 의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1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과 남녀 비율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확대 연구를 제언하며 영향변수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에 근거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도 등의 간호 실무나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에서 이 변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증진을 바람직하게 도모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łażek, M., & Besta, T. (2012). Self-concept clarity and religious orientations: Prediction of purpose in life and self-esteem.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3), 947-960. <http://dx.doi.org/10.1007/s10943-010-9407-y>
- Bronk, K. C., Finch, W. H., & Talib, T. L. (2010). Purpose in life among high ability adolescents. *High Ability Studies, 21*(2),

- 133-145. <http://dx.doi.org/10.1080/13598139.2010.525339>
- Choi, M. S.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363-377.
- Choi, M. S., & Son, C. N. (2007). The effects of purpose in life on self-esteem, problem solving attitude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4), 951-967.
- Choi, S. H., Lee, E. J., & Park, M. J. (2002). A comparison of death orientation in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studying a maj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3), 424-433.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mpiric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00-207. [http://dx.doi.org/10.1002/1097-4679\(196404\)20:2<200::AID-JCLP2270200203>3.0.CO;2-U](http://dx.doi.org/10.1002/1097-4679(196404)20:2<200::AID-JCLP2270200203>3.0.CO;2-U)
- Gong, S. J., & Kim, K. H. (2010). Factors related to meaning in life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4), 438-447.
- Han, M. J., & Choi, J. Y. (1999). A study about the relation of the purpose in life and the death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1*(2), 167-181.
- Han, N. Y., Yoon, H. J., Park, E. W., Cheong, Y. S., & Yoo, S. M. (2002). Perception of a good death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3*(6), 769-777.
- Jang, H. S., & Choi, Y. I. (2007). Relationships among fear of death,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4*(4), 105-122.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s Studies, 11*, 107-130.
- Jeong, H. S. (2010).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 Jo, K. H., & Lee, H. J. (2008).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29-237. <http://dx.doi.org/10.4040/jkan.2008.38.2.229>
- Kang, E. S. (2001). Meaning and purpose in life of nursing students. *Kosin Medical Journal, 16*(1), 127-137.
- Kang, E. S. (2003). Relationship of the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self-esteem of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3), 245-259.
- Kim, G. H., & Kim, K. H. (2009). Effects of a self-esteem promotion program on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among female freshma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431-438.
- Kim, H. S., Jung, S. K., Ko, Y., & Song, J. W. (2001). Reliability &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Purpose in Life(PIL) test' sca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6*(2), 155-165.
- Lee, H. J., Jo, K. H., Chee, K. H., & Lee, Y. J. (2008).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among human service students in South

- Korea: A Q-methodological approach. *Death Studies*, 32(9), 870-890. <http://dx.doi.org/10.1080/07481180802359797>
- Lee, J. Y., Nam, S. K., Lee, M. K., Lee, J. H., & Lee, S. M. (2009).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173-189.
- Lee, S. H., & Kim, S. J. (2012).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464.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453>
- Mazor, K. M., Schwartz, C. E., & Rogers, H. J. (2004).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new instrument for measuring concerns about dying in health care providers. *Assessment*, 11(3), 230-237. <http://dx.doi.org/10.1177/1073191104267812>
- Park, S. S., & Lee, J. S. (2002). A research on the cultural validity of PIL and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2(2), 59-75.
- Pinquart, M. (2002). Creating and maintaining purpose in life in old age: A meta-analysis. *Ageing International*, 27(2), 90-114. <http://dx.doi.org/10.1007/s12126-002-1004-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Wrosch, C., Baum, A., Cohen, S., Martire, L. M., Matthews, K. A., Schulz, R., & Zdzienicka, B. (2006). The life engagement test: Assessment purpose in lif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3), 291-298. <http://dx.doi.org/10.1007/s10865-005-9044-1>
- Schwartz, C. E., Mazor, K., Rogers, J., Ma, Y., & Reed G. (2003).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6(4), 575-584. <http://dx.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5>
- Shin, H. J. (2011).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of terminal care on professionalism and good death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Statistics Korea. (2012). *The 2011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17, 2013,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aSeq=26004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Sung, M. H.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84-96.

Effects of Perceived Death and Self-esteem on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Chun-Gill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level of meaning in life(MIL) among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identify the effects of death perception, including good death and concerns about dying, and self-esteem on MIL.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developed and carried out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N=301).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MIL was 4.70 on a 7-point scale. The factor of purpose of life received highest score among all factors in MIL. MI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good death, and self-esteem. However, concerns about dying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IL. MIL showed a strong association with self-esteem($r=.72$). Specifically, self-esteem($\beta=.608$), satisfaction of school life($\beta=.190$), relationship with parents($\beta=.180$), good death($\beta=.080$), school grades($\beta=.078$), and age($\beta=.074$) all significantly influenced MIL.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61.0%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is an important factor for MIL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self-estee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increase their MIL. These research findings can be utilized to support programs such as counseling and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Death, Self-esteem, Meaning in lif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6A3A01033504).